

한국교회의 보·혁갈등과 그 대책*

-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중심으로 -

이종원 (한일장신대)

I. 들어가는 글

II. 에큐메니칼 운동과 보·혁 갈등

1. 진보 진영과 에큐메니칼 운동
2. 보수 진영의 에큐메니칼 반대 운동
3. 보수 진영의 WCC반대 근거

III. 한국교회의 보·혁 갈등의 역사적 배경

1. WCC 반대의 역사적 배경
2.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

IV. 보·혁 갈등이 빚은 결과

1. 교회의 실패로 인한 영향력 상실
2. 개교회 중심주의의 부작용

V. 보·혁갈등의 해결방안

1. 연합사업을 통한 하나되기
2. 유기체의식으로 하나되기
3. 교파와 교단의 장벽 넘어서기

VI. 나오는 말-화해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2014년 4월 26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of
Korean Church and its Solution
- Focusing on WCC and Ecumenical Movement

Lee, Jong-won

In this paper, I want to survey the problems of the conflict betwee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of the Church in Korean context. I will especially focus o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nd Ecumenical movement and then I will pursue the solutions of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between Korean churches.

Around 2013 WCC in Busan, the Korean church was drawn into conflict again. Even though pursuing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of churches, church council caused the conflict and disagreement of churches. As a result, the Korean church is revealed shameful aspects of themselves to the other world's churches. In this conflict, ecumenical controversies betwee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of Korean churches involved theological and ideological arguments with hegemony.

The issue is that WCC denies inerrancy and inspiration of the Bible, and WCC disapproves that Jesus is the only intermedate. And also WCC holds religious pluralism based on false soteriology and ecclesiology. But WCC is not liberalism because it pursues the holistic Gospel, Trinity, Ecclesiology, Soteriology, Eschatology based on the movements of faith and work, and seeks to the kingdom of God.

Recently, one of the important causes that Korean church has lost confidence is the conflict between churches. Therefore the primary task of us is the union and restoration between church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church must firstly have the consciousness of an organism.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Every church is part of an organism con-

sisting of Christ's whole body. Each part must be connected, harmonized and balance one another. Secondly, church must destroy the obstacles between us, and be reborn toward a community of fence movers. Thirdly, church must get together and be the community of worship praying with repentance. Through worship, church must progress toward true accordance and unity.

Church is the community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erefore church must fulfill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as Jesus Christ who became the intercessor and destroyed the barrier, dividing the wall between God and man,

Key words: WCC, Ecumenical Movement, Liberalism, Conservatism, Conflict, Reconciliation, Consciousness of Organism

I. 들어가는 글

한국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단이 분열되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1950년대에만 세 차례에 걸쳐 분열되었다.¹⁾ 신사참배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의견 차이, 교회일치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교권 갈등과 맞물리면서 장로교회는 분열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신학적인 견해 차이인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립과 갈등구조가 뿌리내리고 있다.

최근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 전후로 한국교회는 또다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갈등양상으로 전개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부산총회 유치에 앞장섰던 이들은 한국에서의 WCC총회 개최는 120년 한국개신교 역사의 쾌거이자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총회 유치에 적극 힘썼다. 이번 부산총회를 계기로 그동안 분열되었던 한국교회가 하나로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부산총회 유치가 확정되자 WCC의 신학사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산총회 개최를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부 보수편의 인사가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자, 보다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이들은 WCC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포럼이나 집회를 통하여 WCC의 실상과 신학적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반대하였고, WCC 회원교회들의 총회단체 탈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양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의 토론회를 통하여 타협안을 찾고자 하였지만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만 계

1) 한국 개신교회의 분열은 장로교 뿐 아니라 감리교도 세 차례의 분열과 통합의 과정을 거쳤으며, 침례교나 성결교도 분열을 겪었다. 박응규,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에 대한 재조명」, 『장로교회와 신학』8, 2011년, 150쪽.

속되었다.

WCC개최를 둘러싸고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 양측의 대립과 갈등의 와중에 제10차 부산총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부산총회 전후로 한국교회는 또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도모해야 할 WCC총회가 오히려 분쟁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번 부산총회 이후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A)는 2014년 10월 서울에서 예정되었던 총회를 연기하였다.²⁾ 세계복음주의협의회가 서울 총회를 연기한 이유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내부의 분열과 한기총 주도로 WCC부산총회를 반대했기 때문이었다.³⁾ 한기총 주도의 WCC반대집회는 WCC와 오랜 시간 협력해 온 WEA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던 것이다.⁴⁾ WEA 총회 연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한국교회의 분열이었던 만큼 이는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서로 간에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은 없고, 반목과 질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⁵⁾

이번 부산총회에서 보았듯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한국교회가 극복해

2) WEA 총회는 전 세계 129개국 150여 단체로서 매 6년 마다 열리며, 교단 파송 총대들이 참여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와 달리 WEA 회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회무를 진행해왔다. WEA는 2억 5000만여 명에 달하는 복음주의권 교회들을 대표하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이다.

3) 기독교보 2014년 2월 22일자. 한기총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한국교회연합이 분리되어 나갔고, 최근 류광수, 박윤식 등에 대한 이단해제 문제로 내용을 겪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한기총이 중심이 되어 WEA 총회를 여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독교신문 2013년 12월 23일, 2014년 2월 13일자.

4) 한기총 회원 교단들은 총회 개막 당일 'WCC는 적그리스도'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총회 반대 이유 책자를 나눠주며 반대집회를 열었다. 세계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5)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한보협)는 2014년 2월 20일 WCC부산총회 반대운동 경과를 보고하고 한국사회의 WCC 확산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올곧은 성경관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였다. 한보협은 40여개 교단 및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국민일보 2014년 2월 21일자.

야 할 과제이다. 평화의 도구로서 세상의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화합의 매개자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갈등하고 분쟁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며, 이는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일치와 회복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소고에서는 한국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문제를 세계교회협의회와 에큐메니칼 운동과 연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견해 차이로 생겨난 보수와 진보 양자 간의 갈등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화합과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에큐메니칼 운동과 보·혁 갈등

한국 교회의 보수와 진보는 세계교회협의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은 세계교회협의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호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은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에는 적대적이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1. 진보 진영과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교회협의회(WCC·World Council of Churches)는 세계 모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 기구이다. 에큐메니칼(Ecumenical)은 헬라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시작됐으며, ‘만물

들이 살고 있는 온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큐메니칼이란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운동,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삶과 봉사(life and work) 운동, 복음전파와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는 복음전도와 세계선교운동과 이 세 운동의 신학을 가리키는 개념이다.⁶⁾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교회 본질'의 회복을 의미한다.⁷⁾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강조하고, 영적인 세계만을 관심두었던 이원론적 세계관으로부터 사회참여를 통한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세계관으로의 이동, 교회와 교파의 팽창주의로부터 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들을 포괄하는 운동이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 이를 통한 선교의 뜻을 담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WCC를 통해서이다. WCC는 1910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 태동했다. 이 대회 후 당시 세계교회들은 국제선교협의회,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등 3개의 지속 가능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중에서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위원회가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150여개 교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WCC를 창설했다.

WCC는 세계 140개국, 349개 교단, 5억7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교회협의회로서,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연합기구이다. 정

6) 이형기, 『세계교회 협의회와 신학』 (성남: 북코리아, 2012), 18-19쪽.

7) 박상증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오순절의 감동적 체험을 계승한 운동으로 보았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서로의 사상, 언어, 문화, 민족전통, 기타 여러 이유로 분열되어 분파작용이 발생하게 된 교회의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여, 성령의 은사로 본래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보았다. 박상증,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대한기독교서회, 1992), 41쪽. 안재용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특성을 복음중심, 생명중심으로 보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선교 지향적이며, 평화 지향적이며, 정의 지향적이고 봉사 지향적이라고 보았다. 안재용, 『에큐메니컬 운동 이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7쪽.

교회, 성공회, 개혁신교회, 침례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연합교회, 오순절 교회가 WCC에 회원교회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제10차 WCC 부산 총회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되어 전 세계 교회가 직면한 생명, 정의, 평화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⁸⁾ 이번에 개최된 WCC 총회에 예장통합과 기장, 기감,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 뿐 아니라 NCK 소속 교단인 한국구세군과 기독교한국루터회, 한국정교회 등도 참여하였으며, 로마 가톨릭도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부산총회는 세계 140개국 9000여명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교회의 일치와 갱신,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통전적 선교운동으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되었다.

2. 보수 진영의 에큐메니칼 반대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에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보 진영과는 달리 보수 진영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전투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을 갖는다. WCC부산총회 개최가 결정되자, 보수 교단들은 보수교단연합회를 구성하여 WCC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예장합동을 비롯하여 예장고신, 예장합신, 고려, 예성, 기하성 양평동측 등의 보수교단들은 WCC반대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WCC가 추진하고 있는 에큐메니칼운동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인본주의 신학사상을 가졌다

8) 부산총회를 통해 30년 만에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새 선교문서가 채택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 등 12개의 문서가 통과되었다. 국민일보 2013년 12월 31일자.

고 비난했다. 특히 2013년 총회에서는 WCC총회를 앞두고 각 교단 신학교와 신학연구위원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WCC총회를 반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⁹⁾

보수 진영은 WCC부산총회를 준비하는 교단에 대해 거침없이 비난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연합주의자들의 발상”, “망령된 사탄의 장난”, “소나무 재선충과 같이 박멸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¹⁰⁾ 또한 이들은 WCC 부산 총회 개막식을 하루 앞둔 2013년 10월 29일 오후 1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앞에서 WCC반대집회를 열고, ‘좌경·용공주의·동성애·일부다처제, WCC반대’ 현수막을 들고 벡스코 거리를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보수 진영은 “WCC총회를 개최하는 한국목회자들은 과거 신사참배에 참여한 이단으로 한국교회의 공적이 될 것이며, 한국교회 역사 속에 그 이름이 후손에게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¹¹⁾ 하지만 WCC를 반대하는 측의 이러한 비난이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WCC개최 자체가 신사참배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비난의 수위를 볼 때, 신학적 견해 차이에 대한 표현이 그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3. 보수 진영의 WCC반대 근거

보수 진영은 WCC가 성경무오설과 영감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9) 기독교신문 2010년 10월 12일자.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60> (2014년 2월 24일 검색)

10) WCC반대 보수교단 연합회에는 총 38개 교단이 참여했다. 크리스찬연합신문 2013년 5월 20일자.

11) 세계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29/20131029005312.html?OutUrl=daum> (검색 2014년 2월 24일)

가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 됨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WCC가 잘못된 구원론과 교회론에 기초하여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한다고 비판한다.

1) WCC의 구원론과 종교다원주의

보수 진영은 WCC의 구원론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신 중심의 보편적 구원론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즉, WCC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타종교에서의 구원을 주장하는 포괄적 종교혼합주의와 보편구원론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WCC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의혹은 바아르 선언서(Baar Statement) 때문이다. 바아르 선언서는 WCC 세계선교전도위원회 산하 대화분과 위원회가 “나의 이웃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라는 주제 하에 이방종교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4년간 연구한 후에 내놓은 공식문서이다.¹²⁾ 이 문서는 WCC 7차 총회(호주 캔버라)를 위한 공식 문서인데, 이 문서에 대해 정준모는 “타종교에 개방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아야 하며, 성령 안에서 타종교와 교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종교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확인”시킨다는 점을 들어 WCC는 종교혼합주의 내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³⁾

바아르 선언서에서 논란이 되는 개념은 ‘종교적 다원성(religious plurality)’이라는 말인데, 보수 진영은 이를 종교다원주의로 해석하면서 WCC

12) 바아르 문서(Baar Statement: Theological Perspectives on Plurality)는 1. 서론(Introduction) 2. 종교적 다원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A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Religious Plurality) 3. 기독교와 종교적 다원성(Christology And Religious Plurality) 4. 성령과 종교적 다원성(The Holy Spirit And Religious Plurality) 5. 종교 간 대화: 신학적 관점(Interreligious Dialogue: A Theological Perspectiv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 진영은 다원성(Plurality)을 다원주의(Pluralism)로 이해하고 있다

13) 정준모, 『개혁신학과 WCC에큐메니즘』(용인: 목양, 2010), 65쪽.

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바아르 선언서가 강조하는 바는 다종교 상황에서의 열린 마음과 태도이며,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이다. WCC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에서 타 종교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WCC는 종교의 다원성(plurality)은 인정하지만 종교다원주의(pluralism)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WCC는 타 종교들과의 대화에서 복음과 성경, 삼위일체론, 교회의 본질,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 등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양보하지는 않는다. WCC는 보편주의적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장하면서도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확고하게 붙잡고, 도덕과 사회 윤리의 차원에서 타 종교들과 대화하고 연대하며, 과학과 기술, 경제와 정치, 사회와 문화 등 제반 분야의 학문들 과도 대화하고 연대하여 JPSS(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와 JPIC(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의 요구들이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¹⁴⁾

2) WCC의 선교관

보수 진영은 WCC의 선교관이 영혼 구원 복음 선교에서 사회 정치 선교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개혁신학이나 전통신학과는 동떨어진 신학적 발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양 측의 선교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WCC가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면서 현실분석과 대안의 모색, 해방과 인간화를 위한 사회 참여를 영혼 구원 보다 우선시한 반면 복음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가난과 억

14) 같은 책, 41쪽. JPSS는 1975년 나이로비 대회에서, JPIC는 1990년 서울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할 때 채택되었다. 구춘서, 「세계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미친 영향, 『신학과 사회』27-2, 2013년 8월, 58-59 참고.

압, 인간 해방의 문제 보다 복음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을 우선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양측 사이의 갈등은 채수일의 지적대로 “인간화냐 복음화냐, 사회구원이냐 영혼구원이냐, 사회구조변혁이냐 개인적 회심이냐 등의 양자택일적 논쟁 중심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¹⁵⁾ 따라서 이는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옳으나 그르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3) 정현경 박사의 초혼제와 성령론

1991년 캔버라 WCC에서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인 파르테니오스와 정현경 박사가 기조연설을 하였다. 정현경 박사는 제3세계와 여성을 대표하여 주제를 발표하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한(恨)의 신학 입장에서 혹은 경험의 세계로부터, 혹은 아래로부터의 성령론을 주장하다가 정통 성령론으로부터 너무 빛나가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초혼굿의 형식을 빌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탄식과 울부짚음을 성령의 목소리와 동일시하였다.¹⁶⁾

정현경 박사의 진보적인 신학사상은 한국의 정통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많다. 이형기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 정현경 박사의 성령론은 삼위일체론의 틀에서 벗어나 있고, 기독교에 정위되어 있지 않으며, 교회론 및 구원론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종말론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¹⁷⁾

15) 채수일,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2), 207쪽.

16) 이형기, 『세계교회 협의회와 신학』, 50쪽. 정현경 박사는 초혼문을 읽으면서 초혼 퍼포먼스를 하였다. 그는 한복 소복차림으로 사물놀이패를 앞세우고 무대에 나타나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한 맺힌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창호지에 불을 붙여 재로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초혼제 신학을 소개하였다. 개혁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 박사의 행위는 단순한 퍼포먼스로 볼 수 없으며 초혼제로 보았다. 초혼제는 죽은 사람들의 혼을 불러내어 한을 풀어주는 제사로서 미신적 무속신앙이다. 조영업, 『W.C.C.의 정체』(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164쪽. 정준모, 『개혁신학과 WCC에큐메니즘』, 65-66쪽.

반면 동방정교회의 주교는 정통 삼위일체론과 정통 기독교론과 성령론을 주장하였다. 보수 진영은 정현경 박사와 기초연설과 초흔퍼포먼스를 문제 삼는데 이는 타당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WCC가 한 개인 신학자의 주장을 채택하여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아니기에 WCC 신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WCC의 정통 신학에 기초한 강연은 동방정교회의 주교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4) WCC의 용공성

WCC에 대한 용공성 비판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사회 정치적 정황과 맞물린 비극이며, WCC를 용공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전쟁 발발 당시 북한이 남침하자, 국제기구로는 최초로 공식입장을 통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즉각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권고했던 단체가 바로 WCC이다.¹⁸⁾

1950년대에 보수진영이 과도하게 WCC의 용공문제에 집착했던 것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독특한 사회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의 보수주의 계열에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측(NAE)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대립하면서, 소련의 정교회가 가입해 있는 WCC를 ‘용공 신신학’으로 규정하여 당시 회원으로 있던 통합측 교단을 ‘용공 신신학’으로 함께 매도하였던 것이다. 통합측 교단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분열을 막기 위하여 WCC를 탈퇴하였으나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주류교단들이 이러한 이유로 각기 기독교(진보)와 예수교(보수)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¹⁹⁾ 서정민은 이를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가 팽배

17) 이형기, 『세계교회 협의회와 신학』, 52쪽.

18) 서정민, 「한국장로교 양극화 문제 : WCC 총회와 에큐메니즘 정체성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651, 2013년 3월, 219쪽.

19) 김형태, 「교회와 목회를 위한 에큐메니칼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위

한 사회에서 피해의식을 지닌 한국교회가 이데올로기 문제에 함몰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²⁰⁾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표면상으로는 신학적인 견해차이인 것 같지만 실은 이데올로기 문제라는 것이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어떤 신조와 신학도 더 나아가 민족의 화합이나 미래도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보수적 신학은 당연히 '철저한 반공'이었고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신학은 '결핍된 반공'이며, 이는 즉시 '용공'으로 비판 받았다. 이러한 교조화된 편파성은 한국교회를 양극단으로 분열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양상은 봉합되지 못한 채 의식저변에 깊이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III. 한국교회의 보·혁 갈등의 역사적 배경

보수 교단의 선봉에 선 예장 합동측 교단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반면 진보 교단의 선봉인 기장측과 예장 통합측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기장측 교단은 1948년 암스테르담 총회 이래로 적극 참여해 오고 있으며, 통합측 교단은 1959년 제44차 총회에서 교회분열을 막기 위하여 WCC를 탈퇴하였다가 1969년 다시 WCC에 가입하여 1975년 케냐의 나이로비 WCC총회에 교단대표들을 파송하였다.

원회,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41쪽.
20) 서정민, 「한국장로교 양극화 문제 : WCC 총회와 에큐메니즘 정체성을 중심으로」, 219쪽.

1. WCC 반대의 역사적 배경

보수교단들이 WCC부산 총회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깊은 에큐메니칼 논쟁과 이를 둘러싼 신학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의 역사가 맞물려 있다. WCC총회를 둘러싼 갈등은 표면상으로는 WCC개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지지여부에 있는 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1950년대의 한국 장로교의 분열에서 시작된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못한 결과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1950년대 초반에 고려파, 기장파, 총회파라는 세 분파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분열들은 표면상 신학적 견해차이인 듯 보이지만, 실상 분열의 이면에는 교권 싸움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1952년 고려파의 분열에 이어 1953년 기장파가 분열할 때도 신학적 갈등과 함께 교권갈등이 있었다. 이 와중에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 이슈가 제기되어 신학적 대립과 교회 분열을 야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과 에반젤리칼 운동의 대결구도로 갈등 양상을 보이다가 분열하게 된 것은 깊은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형된 갈등구조가 촉발된 결과였다.²¹⁾

한국기독교협의회(NCCK)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WCC 창립 총회에 장로교 대표로 김관식과 엄요섭을, 감리교 대표로 변홍규를 파송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WCC 가입을 당연시 하던 차에, 고려신학교 교장 박운선은 1950년 4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어디로 가나”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총회의 WCC참가를 비난하고 칼 맥킨타이어(Carl McIntire)가 조직한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ICCC)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밝

21) 박종화에 따르면, 양 진영 모두 깊은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극히 무비판적인 과정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박종화, 「전환점에 선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전망」, 박상중,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355쪽.

하면서 WCC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듬해인 1951년 22명의 기독교 회원들이 'WCC는 용공적인 기관'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WCC를 반대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전쟁을 경험한 정치적 상황에서, '용공적'이라는 표현은 한국 교계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던졌고, 장로교회는 WCC를 지지하는 에큐메니칼 진영과 ICCS를 지지하는 에반젤리칼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신앙동지회'가 한국복음주의 협회(NAE)를 결성하였는데, 당시 정부의 반공국가적인 정치 상황이 작용하면서 NAE는 보수적이며 친정부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WCC를 지지하는 에큐메니칼 측은 반정부적 성향으로 비춰졌다.

현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적대적 냉전 상황에서 출범하였는데, 냉전체제의 신학적 정당화가 아니라 냉전구조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교회들의 처절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냉전체제의 대결구조에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들 상호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적극적이면서도 저항적 색채를 띠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가열되었다. 보수 성향의 에반젤리칼 운동은 호전적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용공주의로 몰아붙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보수 진영은 한국 장로교회의 보수와 신앙의 순수성 보존이라는 기치 아래 WCC에서 탈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와중에 3천만 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당시 신학교 부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장인 박형룡은 이사회의 승낙 없이 3천만 환을 교지 구입을 위해 지拂하도록 결재하였다. 그런데 이 돈을 사기당하자, 이사회는 박형룡 교장에게 사임을 권고하였고, 박형룡은 기꺼이 사직했다. 이에 '정통 신학 옹호 신앙 동지회'의 52인들은 박형룡의 사표를 '보수 신학의 후퇴'라는 관점에

서 심각하게 보고 박형룡의 복귀를 시도하였다. 3천만 환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장로교회는 WCC를 찬성하는 에큐메니칼 측과 이를 반대하는 복음주의자들(NAE) 사이의 갈등으로 심화되었다. 결국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분열하게 되었다.²²⁾

이러한 분열의 이면에는 교권 갈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해방 이후 서북 세력의 월남과 선교사들의 재입국으로 남쪽에 서북교권이 다시 자리를 잡고 보수주의를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NAE를 주축으로 하는 복음주의 세력이 강력한 교권 세력이 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중심된 반교권 세력이 NAE를 주축으로 하는 보수적인 교권 세력에 도전하면서 갈등에 휩싸였던 것이다.²³⁾

이로 볼 때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의 원인은 WCC 문제를 둘러싼 신학적 갈등과 대립, 박형룡 박사의 3천만 환 사건, 그리고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에 교권 장악을 위한 투쟁이 서로 맞물리면서 중재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분열되었던 것이다.

2.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

한국교회에서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결과 갈등은 냉전 이데올로

22) 1960년 통합측은 갈라진 합동 측과 재일치를 모색하기 위해 통합총회를 연기하면서 합동원칙 8개항을 채택했다. 이 원칙 속에는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세계교회협의회를 탈퇴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양자의 견해 차이는 일치를 보지 못했다. 통합측은 에큐메니칼 운동은 계속하되 잘못된 시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합동측은 에큐메니칼 운동 자체를 폐지하여 WCC와 NCC를 탈퇴하고 완전 보수적인 교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상중,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127쪽.

23) 정병준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 측 인사들 가운데 WCC의 신학노선을 환영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으나 이들이 NAE측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NAE측에 대한 반감, 지역과 인맥, 교권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NAE측의 인사들도 지도자들을 믿고 따를 뿐 WCC에 대한 독자적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정병준,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장로교회와 신학』8, 2011년, 196쪽.

기와 분단 논리와 맞물리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강근환은 한국교회의 신학적 경향을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진보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누었는데,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는 보수 진영이고, 진보주의와 자유주의는 진보 진영으로 분류된다.²⁴⁾

외국의 경우 18~19세기 복음주의 각성운동과 복음전도는 자연스럽게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전개된 복음주의 세계대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훨씬 덜 전투적이었는데, 이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나타난 신학적인 주제들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복음주의 각성운동과 복음전도가 에큐메니칼 운동과 연속선상에서 있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는 18~19세기 복음주의의 흐름 속에서 복음주의 각성운동과 복음전도에는 큰 관심을 보였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에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초창기 근본주의 계열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본주의는 1920년경 미국 개신교 안에서 일어난 보수주의 신학운동으로서, 근대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보수반동으로서 기독교의 신앙과 기본교리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신학운동이었다. 한국의 보수 신학은 이러한 신학운동에 영향을 받아 청교도적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표방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5가지 근본 항목-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성, 그의 대속, 주님의 재림,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강조하였다.

24) 강근환에 따르면, 1930년대까지는 보수적 복음주의 시대였고, 1930년대에 진보주의적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어 보수와 진보로 나뉘게 되지만 보수주의적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보수주의 계열은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로, 진보주의 계열은 진보주의(세속화신학, 민중신학)와 자유주의(토착화 신학, 풍류신학)로 나뉘었다. 강근환,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교육」, 박상중 편,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245쪽. 보수주의(conservatism)란 자유주의(liberalism) 또는 진보주의(progressivism)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내용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변화를 반대하는 경향이다. 박아론, 『보수신학연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9쪽.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는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와 매킨타이어의 ICCC(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그리고 NAE(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복음주의자협회)의 영향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었다. NAE는 1947년 옥켄가(H. J. Ockenga) 등 개혁파 복음주의자들이 반근본주의적 입장에서 근본주의의 신학적 파라노이아(paranoia, 과대망상증)와 분리주의를 비판하면서 결성되었다. NAE의 신복음주의운동(new evangelicalism)은 세계복음주의연합회(World Evangelical Fellowship)와 로잔 세계복음화위원회를 주도하였는데, 신복음주의는 보수주의 또는 근본주의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자유주의와 WCC의 에큐메니즘에 대하여는 관용과 호의를 보였다.²⁵⁾

하지만 이러한 중도적 성향의 NAE도 한국에서는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50년대 냉전의 와중에서 특히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한국의 NAE는 반공 사상과 합류하면서 보다 적극적이며 전투적인 반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변모되었다.²⁶⁾ 이는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가족과 재산을 모두 빼앗긴 채 목숨을 걸고 남하한 이들의 트라우마가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장로교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된 경우나, 성결교단이 예성과 기성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NAE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NCC탈퇴와 WCC탈퇴 주장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반에큐메니칼적 보수 성향은 초창기 보수적인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²⁷⁾ 선교사들이 전한 보수적

25) 박아론은 신복음주의의 이러한 신학적 경향성을 ‘복음주의로 위장한 자유주의자로서의 모습’으로 보면서 경계할 것을 강조하였다. 박아론, 『보수신학연구』, 44-45쪽.

26) 박상중, 「신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 『기독교사상』 36, 18-19쪽 참고.

27) 1930년대 초 해외 유학에서 귀국한 비교적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평양신학교의 『신학지남』에 몇 편의 글을 실었으나 곧 투고할 수 없게 되었는데, 평양신학교의 교수단은 보수신학을 옹호하기 위하여 진보신학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선교부

기독교는 개인의 영혼구원만을 강조하였고, 당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랐다. 당시 미국의 보수적인 개신교는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축자영감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인 신학사상은 오늘날까지 일부 한국교회 특히 총신측, 고려파, 오순절, 그리고 통합 측의 일부 복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와 18~19세기 복음주의와 20세기 초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에 머물러 있는 보수적 성경관을 지니고 있는 점이 단적인 예이다.²⁸⁾

이러한 보수 성향의 한국 개신교는 해방 후 50년 동안 한국의 정치적 보수주의와 함께 충성스러운 동맹세력으로 성장해왔다.²⁹⁾ 1970~80년대 한국사회가 군부정권 하에 있을 때 보수성향의 교회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 성장에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은 선거를 비롯한 정치사건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힐 때는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지극히 현실참여적이고 세속적이면서도 동시에 초월적 보수신학을 표방하는 이중적인 경향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수주의가 지닌 문제점은 특정 이념의 맹목적 지지세력으로, 특정 세력의 배타적 추종자로 기능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통합 보다는 분열의 매개체로, 시대착오적인 보수집단으로 역사발전에 역행해 왔다는 점이다.

반면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교회들은 정치참여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신앙과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들

중심의 신학교육은 한국 신학교육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한 장애물이 되었고 후에는 한국교회의 비지성성과 비사회성을 빚었다. 강근환,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교육」, 248쪽.

28) 이형기, 『세계교회 협의회와 신학』, 115쪽.

29) 손규태, 「보수화와 급류 속에 에큐메니즘」, 『기독교사상』39, 1995년 12월, 13쪽.

은 보수주의 진영을 시대착오적 반현대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반목과 갈등은 교회들을 더 깊은 분열과 갈등구도로 고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IV. 보·혁 갈등이 빚은 결과

1. 교회의 실패로 인한 영향력 상실

루카스 피셔(L. Visher)는 개혁교회의 특징적인 약점 중 하나는 분열의 경향이라고 지적하면서, 개혁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분열함으로써 참된 교회를 보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에는 스스로를 패배시킨다는 것을 조명해 준다고 지적하였다.³⁰⁾ 또한 리처드 니버는 교파주의가 단지 기독교의 힘을 분산시키는 차원을 넘어 기독교의 형제애의 윤리가 계급의 윤리에 의해 패배당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 기독교의 도덕적 취약성의 원천이 된다고 지적하였다.³¹⁾

교회의 분열은 상호 협력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화해의 복음인 진리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린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³²⁾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 교단 간의 잦은 갈등과 분열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공적 기구로서의 모습을 잃어버

30) Lukas Visher, 이형기 역, 『개혁교회의 증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03-104쪽.

31) Richard Niebuhr, 노치준 역, 『교회분열의 사회적 배경』(서울: 종로서적, 1991), 20쪽. 니버에 따르면, 교파주의는 교회의 패배를 고백하는 것이며 교회가 이 세상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도덕적 실패로 보았다. 23, 250쪽.

32)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은 타종교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된다. 그리하여 대적하는 상대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로 인식된다.

릴 뿐만 아니라 마치 경쟁구도에 놓인 사적인 이익집단처럼 비쳐지는 계기가 된다.

교회의 분열은 교단 간의 교회 쟁탈과 지역 교회의 경쟁적인 난립을 부추기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또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틈타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뿌리내리도록 방치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2. 개교회 중심주의의 부작용

타자와 분열함으로써 복음의 순수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자칫 개교회 중심주의나 분파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이는 교회가 시민사회 속에서 스스로 게토화되어 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교회가 분열된 후 자기 교회와 교파, 교단의 물량적 성장에만 매몰되면서 개교회 중심주의로 흐르게 된다. 분열 후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의 선교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왔다.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 선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것은 한국교회의 강점이다. 하지만 개교회 중심주의는 보편교회에 대한 시각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교회 자체를 절대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개교회 중심주의적 성장은 지나친 경쟁관계로 갈등을 유발하였다. 개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교회 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보편적 차원에서 공동 책임의식을 발전시키기 어려우며 민족과 인종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연합할 수 있는 응집력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V. 보·혁갈등의 해결방안

1. 연합사업을 통한 하나되기

교회의 진정한 연합과 일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ad fontes)’ 데서 시작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이다. 영적으로 하나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한국 교회의 선교 초창기에도 있었다.

1) 초창기의 연합사업

한국 장로교는 다섯 개의 장로교회에 의해 세워졌다는 점에서 신학적 의미의 에큐메니즘이 논의되기도 전에 이 개념에 의해 설립된 특징을 갖는다.³³⁾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 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가 모두 연합하여 ‘장로교공의회’를 만들었고, 1905년에는 4개 장로교 선교회와 2개 감리교 선교회가 함께 ‘복음주의 연합공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를 통해 획기적인 선교지 분할 협정을 맺음으로써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교회 간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였다. 또한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 부흥회를 개최함으로써 대부흥 운동의 불씨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다.³⁴⁾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회에서 사경회를 주관하는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33) 한국교회는 선교사 입국 이전에 성서를 번역하고 한국인 전도자를 양성한 스코틀랜드 장로회, 선교사를 파견한 미국 북장로회, 그리고 호주 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에 의해 세워졌다. 이들은 함께 연합하고 연대함으로써 1907년의 대한노회와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를 설립하면서 탁월한 ‘선교에큐메니즘’을 발휘하였다. 서정민, 『한국장로교 9월 총회의 계절에 : 100년 다음의 역사 그리고 과제들』, 『기독교사상』 657, 2013년 9월, 227쪽.

34)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장로교회와 신학』8, 2011년, 201쪽.

한국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한국에 자신이 속한 교파교회의 이식이 아니라 단일한 한국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또한 교육, 성경번역, 찬송가 발행, 신문, 잡지, 연합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힘을 합하는 아름다운 일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들은 복음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합이 폭넓게 이루어진 결과였다.

2) 교회연합운동

초창기 연합사업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1972년 9월 16일에 장로교회 4개 교단(고신, 합동, 통합, 기장)의 총회장들과 총무들이 성서공회에 모여 남북적십자 회담, 북한 선교, 장로교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것이 효시가 되어 1980년 말 ‘한국장로교협의회’(한장협)가 조직되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장로교회 교단들은(예장합동, 합동개혁, 보수호선, 합동정통 등 25개 교단) 1992년 ‘예수교장로회협의회’(예장협)를 조직했다. 그러다가 1995년에 합동이 한장협에 가입하였고, 합동정통과 호헌도 한장협에 가입하였다.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개혁교회연맹의 협조로 1981년 예장 통합측을 비롯하여 기독교장로회, 예장 합동 측, 고신 측, 그리고 대신 측 등 한국의 5개 장로교단으로 구성된 한국장로교협의회를 발족시켜 하나의 교회 예식서를 통일해 보자는 연구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³⁵⁾

1989년 12월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발족되었다. 한기총은 장로교회 통합 측 원로 목사들과(한경직, 유호준)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35) 김형태, 「교회와 목회를 위한 에큐메니칼운동」,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42쪽.

모여서 친교와 협력, 선교와 사회봉사에 연합하여 사역하자는 취지에서 발족되었다.³⁶⁾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한기총의 교류 제안을 받아들여 1999년 한국 교회 연합운동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8년에 교회 분열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교회 일치를 향한 목회자 갱신 운동으로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창립되었다. 한목협은 교회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여 화해케 하고, 치유, 화해, 생명을 위한 목회자 갱신과 교회 갱신을 추구하였다. 한목협 안에는 15개 교단의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교리나 신학 논쟁 대신에 ‘공동의 비전(Vision)’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코이노니아). 즉, 다양한 교단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의 믿음, 소망, 사랑에 따라 연대하고 연합한다. 또한 한목협은 ‘나눔과 섬김의 연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디아코니아).³⁷⁾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한다. 교파와 교단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여야 한다.

2. 유기체의식으로 하나되기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신학은 종교개혁 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의 유럽교회와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세계는 한 세기 이상 지속된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전 세계의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정교회, 오순절 교회 등 기독교 여러 교파들의 관계와 상호이해가 진행되고 있는

36) 임희국,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제언」, 『장로교회와 신학』8, 2011년, 236쪽. 한기총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봉사를 하였다. 1995년 이후에는 북한 교회 재건 운동, 중국에 있는 탈북자 보호,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돕기에 헌신하였다. 같은 책, 237쪽.

37) 임희국,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제언」, 244-245쪽.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에큐메니칼권과 에반젤리칼권이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으며, WCC와 WEA, 로마 교황청이 공동의 선교문서를 작성해 발표할 정도로 선교를 위해서는 격의없는 협력을 하고 있다.³⁸⁾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종교적 상황은 여러 이웃 종교들과 공존하는 다원적 환경 속에 있다.

교회는 해석학적 공동체, 즉 주어진 텍스트, 상징, 그리고 실천을 탐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을 받는다. 해석학적 공동체의 과제는 오해, 논쟁, 분리의 극복, 위협의 규명, 갈등의 해결,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분리적인 해석에 근거한 분열의 예방을 포함한다.³⁹⁾ 교회가 이러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새롭게 펼쳐지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하나이며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의미하는 바는 외적인 확일성이 아니라 영적인 일치로 의미한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예배 의식, 교회 정치, 신학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한다.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유기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유기체의 구성원이며 각 지체들이다. 어느 한 지체가 몸의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지체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교회 인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연합 정신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서로 교파가

38) 1950~1960년대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1960~1970년대 로잔 복음주의의 반격 이후 에큐메니칼권(교회일치와 사회참여)과 에반젤리칼권(복음주의)은 상호 강조점이 인정되고 존중되며 수용되면서 바람직한 세계교회의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범성,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예상통합 교단의 입장」,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58쪽.

39) WCC, 윤철호 역,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7쪽.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게 된다.

1947년 시작된 부활절 연합예배는 교단이나 진보·보수를 넘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왔다. 한국교회는 부활절연합예배를 통하여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왔다. NCKK와 한기총은 서로 간 갈등을 치유하고 교회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2006년 4월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한 이후 양측은 해마다 번갈아가며 연합예배 주관을 맡되, 공동준비위원회는 함께 구성해 행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한기총과 NCKK의 갈등,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열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렸었는데, 2014년에는 교단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개신교계가 3년 만에 한자리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하였다.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진정한 연합과 일치로 한결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교파와 교단의 장벽 넘어서기

교회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파나 교단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장벽은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타자와의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나와 타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담장을 옮기는 자들의 공동체(a community of fence movers)”로 거듭나야 한다.

1차 세계 대전 직후 폐허 속에서 웨이커 교도들은 폴란드의 빈민들에게 식량과 의복을 제공하는 구제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티프스 병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당시 폴란드에는 가톨릭 묘지 밖에 없었고, 가톨릭 신자만이 교회법에 의해 매장이 허용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구제사업으로 숨진 선교사의 시신을 묘지 울타리 담장 밖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시체를 묻은 자리가 묘지 울타리 안으로 옮겨져 있었다. 실은 시신을 옮겨 묻은 것이 아니라, 밤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묘지의 담장을 밖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⁴⁰⁾ 신앙과 선의와 우정의 참 실재를 부정하는 빛바랜 교리들에 도전하면서, 누구를 내포시키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 하는 따위의 기존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다시 고쳐 그렸던 폴란드의 담장을 옮긴 공동체의 이야기는 오늘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회 안에 잠재해 있는 배타성을 없애고 폭넓게 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쌓아놓은 장벽을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나누고 분열시키는 높은 장벽을 옮기고 허무는 과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관용의 정신이 요청된다.

VI. 나오는 말 - 화해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에서 WCC와 에큐메니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모색하여 보았다. 보수와 진보 간의 WCC 찬반 논쟁은 신학적 입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 문제, 교권과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에서 기인되어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었음을 주목하게 된다. 심지어는 WCC의 역사나 그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부분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일방적으로 매도하

40) 정응섭, 「다원화 사회에서의 종교교육과 교육목회」, 『신학연구』37, 205-206쪽.

고 전투적으로 비판하였던 점도 보게 된다.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며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신학적 논쟁 이면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교회권력과 체계모니, 지역갈등, 재산상의 문제, 신학교 운영문제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얽히면서 갈등이 증폭되어 분열과 갈등을 빚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분열을 반성하고, 전정환 회개를 통해 교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하는 일치와 연합은 어느 한 지역이나 교회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의 다양한 경험과 신학, 교리를 존중하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도모한다. 그런 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동시에 개방적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현 시대는 급속한 세계화 물결과 다원화 시대 속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립하고 또 새롭게 부각된 선교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를 통해 화해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뜻하지 않는 분열과 갈등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다.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중보자가 되셔서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분단국가인 현실에서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할 모습이며,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치유하고 화해시키기 위한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 구춘서, 『세계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미친 영향』, 『신학과 사회』27-2,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13년 8월.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장로교회와 신학』8, 2011년.
- 박상중,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대한기독교서회, 1992.
- 박상중, 『신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 『기독교사상』 36, 1992년 12월.
- 박아론, 『보수신학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박응규,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에 대한 재조명』, 『장로교회와 신학』8, 2011년.
- 박종천,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즘과 근본주의』, 『기독교사상』39, 1995년 3월.
- 서정민, 『한국장로교 양극화 문제 : WCC 총회와 에큐메니즘 정체성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651, 2013년 3월.
- 서정민, 『한국장로교 9월 총회의 계절에 : 100년 다음의 역사 그리고 과제들』, 『기독교사상』657, 2013년 9월.
- 손규태, 『보수화와 급류 속에 에큐메니즘』, 『기독교사상』39, 1995년 12월.
- 안재웅, 『에큐메니컬 운동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이형기, 『세계교회 협의회와 신학』, 북코리아, 2012.
- 임희국,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제언』, 『장로교회와 신학』8, 2011년.
- 정병준,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장로교회와 신학』8, 2011년.
- 정웅섭, 『다원화 사회에서의 종교교육과 교육목회』, 『신학연구』37.
- 정준모, 『개혁신학과 WCC에큐메니즘』, 용인: 목양, 2010.
- 조영업, 『W.C.C.의 정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채수일,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2.
- Niebuhr, Richard. 노치준 역, 『교회분열의 사회적 배경』, 종로서적, 1991.

Visher, Lukas. 이형기 역, 『개혁교회의 증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WCC, 윤철호 역,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국민일보 2014년 2월 21일자.

경향신문 2014년 4월 11일자.

기독교공보 2014년 2월 22일자.

기독신문 2010년 10월 12일자.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60>

기독신문 2013년 12월 23일, 2014년 2월 13일자.

기독신문 2014년 3월 25일,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80>

세계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29/>

20131029005312.html?OutUrl=daum

크리스찬연합신문 2013년 5월 20일자.

논문투고일: 2014. 10. 29.

심사개시일: 2014. 11. 14.

게재확정일: 2014. 12. 06.

 • 국 문 초 록 •

본 소고에서는 한국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문제를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과 연관하여 진단해 보고, 한국교회의 진정한 화합과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제 10차 WCC부산총회 전후로 한국교회는 또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교회가 하나되는 화합과 일치운동의 기점이 되어야 할 WCC총회가 오히려 분쟁과 갈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계교회에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었다. WCC부산 총회를 전후한 갈등은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깊은 에큐메니칼 논쟁과 이를 둘러싼 신학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의 역사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보수 진영은 WCC가 성경무오설과 영감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 됨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WCC가 잘못된 구원론과 교회론에 기초하여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WCC는 신앙과 직제 운동이 추구하는 복음, 삼위일체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등을 근거로 삶과 봉사 운동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전도를 함께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다. 이는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일치와 회복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첫째, 초창기 한국교회의 연합사업을 본받아 연합 사업에 힘써야 한다. 둘째, 유기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교회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유기체의 구성원이며 각 지체들이다. 각 지체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교회는 나와 타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담장을 옮기는 자들의 공동체”로 거듭나 교단과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이며 평화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중보자가 되어서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해의 사역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WCC, 에큐메니칼 운동, 자유주의, 보수주의, 갈등, 화해, 유기체 의식.
